

디지털 리터러시 보급 현황 및 표준화 동향

김준래 사이언스타임즈 객원기자



요즘은 키오스크(kiosk)가 설치되어 있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를 흔히 볼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은 키오스크를 사용하여 원하는 음식이나 음료를 자유자재로 시키지만, 노인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다가 시간을 보내기가 일쑤다.

이같은 세대 간 격차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어느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대체인 디지털 기술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인 만큼, 그 격차를 줄이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다.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가 강조되고 있는 이유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시대의 필수 역량

리터러시(literacy)는 일반적으로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의미한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인쇄매체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문자를 읽고 쓰는 것이 중요했지만, 인터넷이 등장하고 모바일 기기 등이 탄생하면서 리터러시의 개념이 디지털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을 뜻하

는 것으로서, 디지털 문해력이라고도 한다. 쉽게 말해 디지털 장치와 기술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앞에서 사례를 들었던 스마트폰 앱이나 키오스크 외에도 전자 메일을 사용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며, 채팅과 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 등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거나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 등도 모두 디지털 리터러시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정보의 출처와 내용이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평가 능력과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온라인 보안 등도 모두 디지털 리터러시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가 발생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일까?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는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알거나 불편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가령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하게 되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중요한 정보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또한 가짜뉴스를 판

별하는 능력이 부족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정보에 근거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성 소프트웨어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회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고 간 지난 3년 동안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된 곳은 교육 현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한 학생들은 수업에서 격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학생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온라인 수업 도구를 쉽게 다룰 수 있었지만,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학생들은 수업에서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성적이 과거보다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표준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

파디지털 리터러시는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량이지만, 기업과 국가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워 디지털 리터러시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 로드맵 등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외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선진국일수록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그 나라의 디지털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디지털 리터러시 글로벌 표준을

하나라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글로벌 표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되는데, 대표적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유네스코(UNESCO),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하는 표준 등을 꼽을 수 있다.

ISO 산하의 수많은 표준화 기구 중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국제 표준화 기구는 ISO/IEC JTC1/SC36이다. 이 기구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국제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SC36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평가와 인증은 물론,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르치는 교육 및 교육자 인증,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 등을 다루는 국제 표준을 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UN)에서 국제 교육 및 과학문화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유네스코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된 정책 제안을 통해 국가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유럽연합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기 위한 표준화 기구들과 함께 협력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방안으로 정책보다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 표준화 기구와 여러 국제적 단체들은 다양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며, 세대별이나 소득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